

# 2024 어스아워

3월 23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기후위기와 자연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전 세계가 1시간 동안 함께 불을 끄는 어스아워 Earth Hour  
지구를 위한 1시간, 소등에 참여해주세요!

## 어스아워 참여방법

### 어스아워 참여약속 '우리의 어둠은 지구를 구한다'

#### 어스아워 홈페이지 접속

Earthhour.co.kr  
홈페이지에서 어스아워에 대해  
알아보고 참여 선언을 남겨주세요



#### 소등 참여 약속하기

지구를 구하는 다크히어로가 되어주세요.  
선착순 1천명에게 '어스아워 시그널'을  
보내드립니다.



#### 소등하기

3월 23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불필요한 전등을 꺼주세요!



60  
EARTH  
HOUR



# 2024 어스아워

3월 23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 ‘어스아워(Earth Hour)’란 무엇인가요?

어스아워는 기후변화와 자연파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3월 말 토요일, 전 세계가 함께 1시간 동안 불을 끄는 자연보전캠페인입니다.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한 어스아워는 190여 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보전캠페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남산서울타워, 국회의사당, 프랑스 에펠탑,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 등 세계 주요 랜드마크도 희망과 연대의 상징인 ‘1시간 소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왜 어스아워를 할까요?

2023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을 기록했고, 11월에는 30°C를 웃도는 무더위와 한파주의보가 공존하는 극단적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위기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 야생동물의 69%가 사라졌고,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기후변화 임계점인 1.5°C를 넘게 될 것입니다.

기후 변화와 자연 파괴라는 긴급한 이중 위기 앞에 전 세계가 함께하는 ‘1시간 소등’은 인류에게 지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탈탄소화를 이룰 중요한 열쇠는 자연입니다. 지구의 미래는 오늘,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2030년을 만들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과 더불어 자연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는 우리의 실천, 오늘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WWF(세계자연기금, World Wide Fund For Nature)는 1961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자연보전기관으로, 자연파괴를 막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고자 활동합니다.

